

# 한국씨티은행, 단계적 폐지 검토... 높은 인건비 부담

소매금융 직원 고용승계에 부정적 1조 넘는 직원 승계고용비용 부담 노조, 전체 매각 아닐 경우 전면전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소매금융) 매각과 관련해 '단계적 폐지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사를 밝힌 복수의 금융사들이 씨티은행 직원의 고용승계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자산관리(MW), 신용카드 등 소매금융사업을 분리 매각하되, 매각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폐지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3일 비대면 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소매금융 출구전략을 논의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복수의 금융회사가 인수위향을 접수했지만, 소매금융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며 "고객과 직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하되, 단계적 폐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절차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향자 "인력구조·인건비 부담" 잠재적 매수자들이 직원 고용승계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소매금융) 매각과 관련해 '단계적 폐지방안'을 검토한다.

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이유는 우선 높은 인건비 때문이다.

지난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임직원 수는 939명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이다. 여기에 씨티은행은 시중은행들이 2000년대 초 폐지했던 퇴직금 누진제도 유지하고 있다. 퇴직금 누진제는 법정 퇴직금에 누진율 1.5~1.7배를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8년 3개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인수할 금융사는 1조원에 육박하는 퇴직금까

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유력했던 BNK, DGB, JB 등 지방금융지주도 인수위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금융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의 가치가 최대 1조5000억원정도인데, 직원 승계고용으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하려는 금융사는 없을 것"이라며 "인수위향을 제출한 곳 또한 자사와의 중복 고객 규모, 사업 구조와 역량 등을 실사해 매력적인 매물인지 들여다본 뒤,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는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비대면으로 확대된 금융환경 또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전에는 경력 있는 소매금융직원들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현 금융환경에선 고객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매금융분야는 은행 내에서도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규모를 키울 이유가 전혀 없다"며 "(씨티은행의) WM 부문이 강점이라고 하지만 WM 고객은 원래 여러 은행과 중복 거래하고, 카드 부문도 신규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직원 고용승계 없는 매각?'... 전면전 예고

다만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직원의 고용 승계와 근로조건 유지를 담보한 전체 매각이 아닐 경우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씨티은행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인수 가능한 후보군의 대규모 투자전략,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금융 전체 매각에 대한 안정적인 인수 위향자가 나올 때까지 수

년 이상 충분한 시간과 대책을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며 "졸속 부분매각 또는 자산매각(청산)에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직원 고용 승계와 근로조건 유지를 담보한 전체 매각에는 협력하겠지만, 부분 매각 또는 자산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씨티은행장은 이사회 직후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인수위향자가 제시한 인력구조, 인건비부담은 시일을 두고 검토하더라도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우리 사업 가치의 근간인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도 마음을 열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접수된 인수위향서를 검토한 뒤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실사를 진행한다. 내달에는 전체매각, 분리매각, 단계적 폐지방안을 결정하고, 출구전략 실행 윤곽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5@metroseoul.co.kr

# 신한은행, 금융 넘어 '디지털컴퍼니' 도약

진옥동 은행장, O2O 추진단 신설 CIB 최종 목표로 플랫폼 구축 전담 서비스 확장·ICT 인력 독립 배치



영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O2O 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전통적 은행이 가지고 있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의 스타트업 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에 무게를 실었다.

플랫폼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상품 소싱과 리스크 관리 등은 전문성 있는 은행의 기존 자원을 활용해 신설과 동시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구축 후에는 서비스 확장 및 플랫폼 개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ICT 인력을 독립 배치할 계획이다.

O2O 추진단은 향후 인력, 예산, 시스템, 인프라 등이 완벽히 분리된 CIB(Company in Bank)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로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인가 받은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구축을 전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O2O 추진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금융과 비금융을 연결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진옥동 은행장(사진)의 의지에 따라 신설됐다"며 "은행 안의 스타트업"을 통해 탄생할 차별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손보사, 1분기 실손보험 7000억 손실

개인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 2.7조 위험보험료, 전년 동기 10.4% 증가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난 1분기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부문에서 70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올 초 실손보험료 인상에도 손실이 커지면서 손보사의 실손보험 판매가 더 줄어들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6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내 13개 손보사의 올 1분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6866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도 2조72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어 6.7% 늘어났다. 특히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의미하는 '위험보험료'는 전년 동기 10.4% 늘어난 2조573억원 규모였지만 발생손해액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때문에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137.2% ▲2분기 126.9% ▲3분기 127.1% ▲4분기 131.1% ▲올 1분기 132.6%에 달한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다. 즉, 100%가 넘으면 가입자가 지급한 비용보다 보험금으로 타간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손실이 지속해서 이어지는 데는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이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

힌다.

이에 따라 다수 손보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이어갈 지, 말지에 대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계속된 적자에 실손보험을 취급했던 30개 보험사 중 13개사(생보사 10곳·손보사 3곳)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2011년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생보사 중에서는 오렌지라이프생명 ▲푸른현대생명 ▲AIA생명 ▲DB생명 ▲KDB생명 등이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손보사 중에서는 ▲악사손보 ▲에이스손보 ▲AIG손보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특히 올 초 보험료 인상에 따라 또다시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손보험 판매 중지를 고려하는 손보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카카오뱅크, 주식계좌 개설 400만좌 돌파

9개월 만에 114만 계좌 개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3월 출시한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주식 계좌수가 지난달 말 기준 400만좌를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서비스 첫 해인 2019년에는 9개월 만에 114만 계좌가 신규 개설됐고, 2020년에는 186만좌가 열리며 지난해 말 누적 기준 300만좌를 넘어섰다. 올해에는 5개월간 117만좌가 새로 개설됐다.

한국투자증권을 첫 증권사로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는 2020년에는 NH투자증권(2월)과 KB증권(6월)으로 확대했다.

카카오뱅크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개설 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계좌 개설 신청이 가능해 20~30대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각 증권사들은 카카오뱅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위탁거래수수료 우대, 개설 축하



금 지급 등 차별화된 고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식계좌 개설 가능 증권사를 연내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며 "고객 중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출시해 금융 플랫폼으로 더욱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은행, 호국보훈의 달 기념 이벤트

300명에 플라워박스 제공

NH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선정하는 전쟁영웅 인물들(임택순 공군 대위, 박정모 해병대 대령, 흥은혜 여사, 박평길 육군 병장 등)을 소개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인, 경찰, 소방관, 의료진 등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한국화훼농협의 호국보훈의달 플라워박스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권준학 은행장은 "고객들의 활발한 댓글 참여로 국가유공자, 유족, 군인, 경찰, 소방관, 의료진 등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